| 현불 논단 |

외로움 관리는 부처님처럼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美서 외로움 대상 돈벌이 성행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한 英
이젠 외로움마저 관리하는 시대

현대의 외로움, 개인 · 구조서 기인
상호 관계하며 생존 문제로 확대

붓다는 위대한 외로움의 관리자
우린 많은 존재 도움으로 살아가
함께 하는 '공업중생' 임을 알아야

참으로 요상한 세상이다. '외로움'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직업이 미국에는 성행한다고 한다. 시간당 30달러를 내면 식사와 쇼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대여 서비스업'과 시간당 80달러로 외로운 사람을 안아주는 '커들리스트(Cuddlist)'라는 회사가 성업 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그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긴 사유의 역사 속에서 '외로움'은 항상 고귀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외로움은 인문학의 원천이고 한 밤의 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인가?

지난 1월 영국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으로 임명하였다. 그 장관은 외로움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람을 연결하는'이라는 용어가 깊게 다가온다. 외로움의 원인은 사람 간의 연결이 단절에 있다는 것이리라.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꼽히는 부탄은 행복성이라는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요한 목적을 사람 간의 바르고 따뜻한 관계의 유지에 두고 있다. 외로움 담당 장관과 행복성 장관의 역할이 동일하게 보인다.

외로움에 대한 담론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외로움에 대한 철학적 사변은 사치가 되어 버렸다. 외로움은 실존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전락되어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거론되는 외로움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번거로움과 불편을 회피하고 반려 동물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무생물들을 동행자로 삼는 경우가 개인적 측면의 외로움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혼밥족'이라 불리는 대상이 이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공동체성 붕괴, 가족 관계의 해체, 고령화 사회 등의 원인에서 나온 외로움은 사회구조적 측면이다. 노약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의 외로움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은 서로 배타적인 것인 아니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붓다는 위대한 외로움의 관리사다. 웬 외로움의 관리사? 붓다는 외로움 때문에 출가하였다. 인간 삶이 지닌 생로병사를 보고 깊은 존재의 외로움을 느꼈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치열한 수행을 하였고, 드디어 깨달음을 통해 외로움을 넘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연기법이다. 연기법의 핵심은 '함께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개체는 공동체다. 또한 모든 공동체는 개체이다. 따라서 연기법을 증득하면 외로움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외로운가? 연기법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존재의 도움을 얻어 살아간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날 때 붓다의 '자비 사상'이 나온다. 자비란 'maitri'와 'karuna'를 번역한 것으로 어원상으로 풀면 '우정'과 '공감'으로 볼 수 있다.

외로움에 빠져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최대의 치유는 바로 우정과 공감이다. 연기법을 일상 삶의 틀에서 체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 자비수행이 중요성이 있다. 자비수행을 통해 연기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수행은 자비실천이다. 오늘날 자비 실천의 과제는 타인에 대한 우정과 공감을 사회구조와 제도에 어떻게 투사하느냐에 있다. 현대사회의 외로움 극복은 단순한 개인의 선업(善業)의 차원을 넘어 사회가 함께 하는 공업(共業)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찌하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불교 아이돌봄이 단체, 왜 없을까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문 반짝(가명)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다. 아직 어린 딸을 초면의 아이돌봄이와 단 둘이 남겨두고 회사로 출근하려니 걱정이 앞선다. 가정용 CCTV를 설치할까, 멀리 계신 시부모님을 오시라 할까, 회사에 나와도 머릿 속에는 아이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2016년 11월 기준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144만쌍 중 맞벌이 부부는 52만여 쌍으로 전체의 44.5%였다. 2015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어린 아이가 있다면 육아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부부가 직장에 출근하면 아이를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혹은 늦은 저녁까지 하는 어린이집은 드물다. 매일 다른 사원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직장은 더더욱 드물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가정양육이 49.9%로 가장 많다. 시부모, 친부모들의 황혼육아와 외부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이를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봄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 여러 중계 사이트도 있지만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기독교계인 YWCA다.

YWCA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동화구연, 베이비마사지, 목욕법 등 교육 진행해 아이돌봄이로 파견하고 관리한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다. 기왕이면 믿을 만한 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은 것이다. 같은 금액이어도 '종교계라 낫겠지' 하는 이미지에 문제 발생시 책임까지 지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봄이로 성과를 본 YWCA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양성까지 나섰다.

그렇다면 YWCA와 같은 불교계 사회봉사 · 서비스 조직은 없을까. 애석하게도 없다. 2011년 불교여성개발원이 YWCA를 벤치마킹해 여성불자들의 사회기여를 높이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108인회 차원에서 진행돼 확산되지 못했지만 꾸준히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부터 불자 요양보호사를 교육, 양성해 불자 가정의 어르신들을 불자들이 보살피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환영할 일이다.

최근 사찰들은 어린이집, 복지관 등을 세워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가 가진 인적 자원, 즉, 신도를 교육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사찰이나 불교계 기관이 수많은 여성불자들을 교육하고 중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유아 포교도 되지 않을까. 또 40~60대 여성불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효과도 얻지 않을까.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공동체였다. 개인의 기도와 수행에서 불교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진정한 불교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社說

진정한 평화올림픽 위해서는…

30년 만의 대축제, 평창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스포츠 4대 이벤트로 꼽히는 여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대회, 겨울 올림픽을 개최한 6번째 국가가 된다.

한때 전쟁 직전까지 갔던 국가 위기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로 인해 평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평창대회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정치가 바뀌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의 탁구를 통한 '핑퐁외교', 남북 축구 단일팀 구성을 통한 대화 재개 등이다.

특히 올림픽은 평화 정신 함양을 기치로 한다. 고대 올림픽이 탄생한 것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경쟁도 있지만 이 기간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였다. 평창올림픽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대화를 통해 향후 동북아 평화 정착의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불교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포츠와 정치가 별개이듯 종교와 정치도 별개다. 하지만 종교계의 움직임을 통해 정치가 바뀌기도 한다. 임진왜란 후 사명대사의 활약이나, 당나라 유학승들의 활약이 그것이다.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은 한국사회 갈등해소의 단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남 및 남북갈등 해소에는 불교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새겨지고, 올림픽 이후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어지기까지 불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

밀양 · 제천 참사, 아픔을 나누자

지난 한 주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사고 직후인 지난 1월 29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방문,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설정 스님은 세종병원서 사고를 당한 故 김삼석 할머니의 빈소를 찾았고, 유가족과 아픔을 나눴다. 또한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키도 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관음종 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도 밀양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밀양 지역 불교계 역시 참사 극복을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갔다고 한다. 밀양 지역 사찰들은 화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현수막을 걸고 추모 기도를 입재했다. 참사 49일인 오는 3월 15일까지 기도를 진행하며, 합동위령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에도 불교계의 추모 행렬은 이어졌다.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비의 발로였다. 옛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가족을, 친구를 갑자기 잃은 아픔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온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바로 규명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소방 안전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물 책임자에 대한 필벌(必罰)도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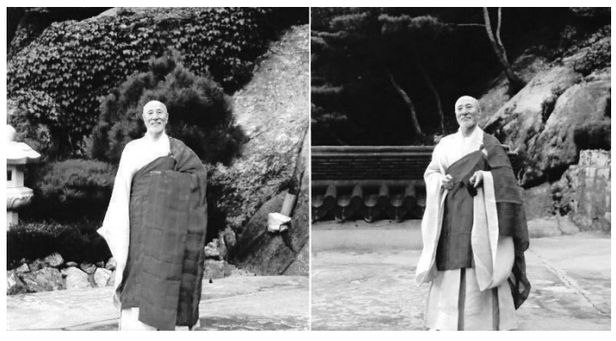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는 화재사고로만 너무 많은 인명을 잃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도 울려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